

#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에 관하여

임 금 숙\*

I. 들어가는 말	추세
I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특징	V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위한 정책적 과제
II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원인 분석	VI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중국기업이 대북한 투자에서 부딪치게 될 문제	VIII. 맺음말
V. 향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전망과	

## Abstract

### About FDI of Chinese Corporations to the North Korea

The FDI of Chinese corporations to the North Korea which started in recent years has the characters of compensation trade and cooperation in pattern, with the corporations in the South as the lead, taking the China - Korea border region as the medium and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manufacturing industry, circulation field as the center.

The FDI of Chinese corporations to the North Korea will affect the economic recovery of the North Korea to a certain extent and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transformation of economic system in the North Korea.

The FDI of Chinese corporations to the North Korea will meet various ob-

stacles such as weak social basic facilities, low purchasing power, less developed market economy, obstacle from idea.

Hereafter, in order to promote FDI of Chinese corporations to the North Korea successfully, active promotion of favorable international climate for the North Korea, opening up of the North Korea, preparation for legal and systematic device, deciding the strategy of FDI to the North Korea, correct selection of investment project and partners, research on present investment condition of other countries to the North Korea and trend in the future are raising as the political questions to study.

**Key Words:** FDI, market access FDI, resource access FDI.

\* 중국연변대학경제관리학원 경제학과 교수

## I. 들어가는 말

개혁·개방이래 중국경제는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기업 경제력이 대폭 증대되었으며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연해 지역의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글로벌화 경험을 습득하여 중국기업의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선도(先導)하는 중이다.

북·중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고 오랜기간 동안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우호관계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은 자금, 기술 등 여러 면에서 북한에 비해 비교우세를 지니고 있기에 북한을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의 적절한 나라로 선정하고 있다.

중국학계에 기업들의 해외투자에 관한 연구논문은 일부 있으나 대북한 투자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없는 상황이다. 최근 년간 국내기업들이 북한투자에 관심을 보이자 “지금이 대북한 투자의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는 동시에 “북한은 시장이 작고 인프라도 열악하며 여전히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고 특히 북핵위기로 인하여 국가안전도가 낮은 등 여러 면으로 불리하기에 광산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라도 차라리 베트남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반대의견들도 있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에 관한 연구는 해외투자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북·중 경제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

동시에 대북한 투자는 북한 경제회복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국제사회에 편입되어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될 것이다.

## I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특징

새 천년에 진입한 이래 중국 동북3성과 남방의 일부 기업들이 북·중 변경지역을 중개(中介)로 북한진출을 시작하였다. 지난 2004년에 중국 흑룡강성, 사천성, 복건성 등 여러 개 성에서 ‘대북한투자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2004년 11월 18일 중국 심양시 칠보산 호텔에서 열린 요녕성 심양시 기업가 협회에서 주최한 ‘대북한 투

자설명회'에는 중국내 기업인 5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고 보도되었다.<sup>1</sup>

북한도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05년 2월 25일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북·중 우호협회의 요청으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급관원들이 북경에서 『조선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다.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김영민 부위원장이 참석하였고 집행국 김정빈 국장이 조선의 투자환경, 절차 및 특혜정책과 20개의 대외유치중점 프로젝트를 설명하였다.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중국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고 중국의 '조선경제무역자문회' 홈페이지에 발표되었다.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

### 1. 동북3성과 남방계 기업들이 선도(先導)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조선투자환경설명회』 시,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집행국 김정빈 국장은 현재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수가 120여개라고 밝혔다. 그 중 항주(杭州)와 하하집단, 하남일타(河南一拖)집단, 산동성초금(招金)집단,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 등은 대기업체들이고 장춘영초(英超)과학주식유한회사, 대련화흥(華興)집단, 화풍(華風)집단, 장춘이달공무(利達工貿)유한회사, 장춘만달(萬達)제약,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등은 민영기업체들이다.

중국 남방지역의 민영기업들이 대북한 투자에 굉장한 열성을 보이고 있다. 절강성 온주 상인들로 운영되는 중췌(中旭)그룹은 2003년에 북한 최대 백화점인 평양 제일백화점의 운영권을 따내고 인민폐 5천만원을 투자하여 내부장식에 착수하였다고 보도되었다.<sup>2</sup>

북건성의 7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투자시찰단이 2004년 8월 31일 북한을 방문하고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북한에 무연탄 공장 건설과 플라스틱 공장건설에 총 1,170만 달러에 달하는 합작 상담을 논의하였다. 절강성온주(溫州)시에서도 2004년 7월 '대북한 투자설명회'가 열렸고, 2004년 11월 16일 중국사천성(四川)의 31개 기업들로 구성된 대북 투자 무역 사절단이 북한 대외무역성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투자 무역환경과 파트너 발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sup>3</sup>

동북3성 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sup>1</sup> 『료녕성조선족신문』, 2004년 12월 4일.

<sup>2</sup> < <http://www.xttzw.com/article/shownews.asp> >.

<sup>3</sup> < <http://www.xttzw.com/article/shownews.asp> >.

해석될 수 있고 남방 민영기업들의 북한 진출은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로 해석될 수 있다.

## 2. 자원 개발영역에 집중투자

### 1) 광산개발

2003년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에서는 북한 함경도에 위치한 무산광산에 인민폐 1억원 가치의 설비를 투자하고 연변의 남평 세관을 통하여 철광분을 수입하고 있다. 2004년에 60만 톤의 철광분을 수입하였고, 2005년에는 100만 톤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철광분 수송을 위하여 3,500만원(인민폐)을 투자하여 무산광산으로부터 남평제련소까지 13km에 달하는 철광분 수송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sup>4</sup>

무산광산은 아세아에서도 큰 철광생산기지로서 11~12억 톤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고 연생산능력이 800만 톤으로써 북한의 가장 큰 철광이다. 길림성에서는 이 투자항목을 크게 중요시하고 수입된 철광분을 통화강철공장에 공급함으로써 길림성의 강철생산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무산광산의 생산라인가동을 위하여 장백세관과 임강(臨江)세관을 통하여 매년 70여만 달러 가치의 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길림성장백현에서는 산동성초금(招金)집단과 연합하여 북한양강도에 위치한 ‘혜산청년동광’에 2억 2천만 인민폐를 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강도 혜산광산은 아시아에서도 비교적 큰 동광으로 평균 동 함유량(1.6%)은 중국동북지역 동광석(0.8%)의 두 배에 달해 높은 경제수익을 낼 수 있다.<sup>5</sup>

### 2) 어업영역에서의 합작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어업영역에서의 공동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북한은 동해 북방한계선이북인 원산 앞 바다를 중국어선에 개방하여 2009년까지 5년간 입어로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는 조건으로 중국어선의 조업을 허용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150톤급 저인망 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 선단이 북한 원산항에서 5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sup>6</sup>

<sup>4</sup> 『연변일보』, 2004년 10월 20일.

<sup>5</sup> 『흑룡강신문』, 2004년 11월 19일.

### 3. 제조업에 대한 투자 병행

중국 최대의 농업기계제조업체인 하남성 일타(一拖)집단 대표단이 지난 2003년 11월에 북한 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하고 트랙터의 조립, 디젤엔진, 오일 펌프 등 영역에서 합작 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다. 합작 초기에는 트랙터 등 농업관련 설비를 수출하고 향후 부품을 수출하여 연간 3천대 규모로 조립 생산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공정 기계, 자동차 분야로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sup>7</sup>

중국 길림성방직수출입공사와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가 공동으로 북한에 투자하여 세운 슬레이트공장도 현재 생산 중에 있다. 북한은 건축자재 공급이 풍부하나 기술·자금의 여건 부족으로 슬레이트 제품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과 자금이 도입되어 좋은 경제적 효과를 이루고 있다.<sup>8</sup>

심양조선족기업인이 운영하는 화신그룹은 2002년에 북한에 젓가락공장과 두부공장을 세우고 연변 담배공장에서도 북한에 담배합작 공장을 세워 생산에 착수하고 있다.

### 4. 보상무역(補償貿易)과 합작투자 형태 위주

현재 북한과 합작하여 자원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무산광산간의 합작, 산동성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청년동광’간의 합작, 복건성의 북한 서부지역 무연탄 광산에 대한 투자도 중국측 기업이 15톤급 트럭 20대, 지게차 3대, 디젤 100톤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매달 1만 톤의 무연탄을 제공,<sup>9</sup> 자원개발영역의 투자항목들은 기본적으로 보상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상무역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 받기에 투자 리스크가 낮고 투입산출(投入產出)주기가 짧으며 상호 계산도 간편하다. 그러나 이러한 합작 방식은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무역의 한 형태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는 아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투자란 기업재산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분의 소유권을 가진 동시에 기업경영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 것을 가리킨다.

<sup>6</sup> 『한국연합뉴스』, 2004년 11월 26일.

<sup>7</sup> 『중국하남(河南)일보』, 2004년 3월 23일.

<sup>8</sup> 『한국연합뉴스』, 2004년 11월 26일.

<sup>9</sup> 『한국연합뉴스』, 2004년 11월 26일.

보상무역형태의 투자는 상호 보완성이 강하며 투자 절차가 간편하여, 서로 신용만 잘 지킨다면 현재 북한 상황에 알맞은 경제합작 형식이다.

### Ⅲ.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원인 분석

#### 1. 글로벌화의 구체적 체현

저명한 국제투자이론의 창시자인 Dengning은 투자발전이론에서 한 개 나라의 투자발전을 3개 단계로 나누었다. “경제발전 초기에는 외자도입을 위주로 하고 대외투자는 보조적인 것으로 하는 초급불균형단계이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외자도입이 증가됨과 동시에 국외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 상호 균형화되는 중급평형단계이며, 경제발전의 고급단계에 진입하면 국외투자가 외자도입을 초월하게 된다.”

개혁·개방이래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더불어 기업경쟁력도 증대되었다. 특히 중국경제발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 연해지역의 기업들은 20여 년래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일정한 자금과 기술을 축적함으로써 Dengning이 제시한 두 번째 단계, 즉 외자도입과 동시에 국내기업들의 대외투자가 늘어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새 천년에 진입한 이래 연해지역의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영역을 찾아 내지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외로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는 해외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자원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고 중국내에서 성숙기에 이른 기술과 설비를 국외로 이전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다방면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년래 중국국내에서는 기업들의 국외투자전략에 관하여 부동한 의견들이 있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재 중국은 발전중인 나라로서 노동력 원가가 낮기에 해외 투자는 ‘자신의 단점으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치는’ 격으로서 비교우세를 발휘하는데 불리하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중국정부도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국외투자기업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의 해외투자는 이미 ‘나가야 하는가?’, ‘나가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쟁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기성사실로 되어버렸으며,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정부에서도 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商務部)의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말까지 허가를 받은 해외투자 기

업 수(금융업을 제외함)는 7,470개이며 투자협약의 자금총액은 370억 달러, 투자 대상국은 160여 개의 나라와 지역에 이르고 있고, 건당 평균투자액은 409만 달러로 증대되고 있다.<sup>10</sup>

## 2. 해외 투자의 적절한 지역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지역을 보면 초기의 홍콩 등 주변지역과 나라로부터 점차 북미지역과 유럽지역, 아세아의 한국, 일본 등 발전한 나라로 확대되고 있다. 2002년 말까지 이미 43개 중국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였고 그 중에는 하이얼, TCL, BOE 등 대기업들도 있다. 2002년 10월 상하이자동차공업집단은 6,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한국쌍용자동차를 인수하였다.<sup>11</sup>

‘해외로 나가는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기업들이 ‘도시는 피하고 농촌으로 나갈 것’을 제창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농촌’이란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즉 중국기업이 자금, 기술 등 면에서 상대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나라와 지역을 가리킨다.

현재 북한경제는 80년대 말 수준으로 퇴보한 상태이며 산업기술 면에서 중국보다 많이 뒤떨어진 상태이고 여전히 심각한 에너지난, 자금난, 기술난들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혁·개방 20여년의 경제발전을 통하여 자금, 기술 등의 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즉, 북한은 중국기업이 자신의 우세를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나라이다.

## 3. 경제적 상호 보완성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주로 자원개발형 투자와 시장개척형 투자이다. 새천년 이후 중국경제는 새로운 경제성장의 주기(周期)에 진입하여 석유, 강철, 시멘트, 목재 등 각종 원자재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내지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보다 싼 국외자원개발에 눈을 돌리게 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광산물자원이 풍부하나 자금, 기술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경제난으로 각종 생산재와 소비재가 매우 결

<sup>10</sup> 『신화사 북경통신』, 2004년 12월 25일.

<sup>11</sup> <[www.beijingreview.com.cn/](http://www.beijingreview.com.cn/)> (검색일: 2004. 3. 2).

핍한 북한에게 필요한 제품과 설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국기업들과의 합작은 북한 경제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다.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중 무역을 진일보 확대시킬 수 있는 길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대외무역이 대폭 위축된 상태이다. 1998년 북한의 대외무역 수출입총액은 14.42억 달러로서 1990년의 41.7억 달러의 2/3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90년대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나 그 속도가 더디다. 2004년 북한의 대외무역총액은 31억 달러로서 90년대 초반의 70%정도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북·중 무역은 급속히 증가되어 2004년도 북·중 무역액은 13.8억 달러를<sup>12</sup> 넘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북한은 각종 생산재와 소비재가 매우 부족하지만, 외화난으로 수입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대북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종 방법으로 투자로 무역을 추진할 수 있다. 즉 설비, 원자재형식으로 투자하여 북한의 기업 가동률을 제고하고 생산량을 늘려 보상무역형태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도 이러한 보상무역형태투자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북한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현재 보유한 자원으로 기계설비와 원자재 및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을 도입하여 생산을 회복하는 좋은 방식이고, 중국기업들도 현재 남아도는 기계설비,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에 비해 가격이 싼 원자재들을 수입하여 경제 효과성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 항목이다.

#### 4. 정치, 문화상 유리한 여건

##### 1) 북·중 두 나라간 우호관계의 역사

북·중 두 나라간의 우호관계의 역사는 유구하다. 한국전쟁을 통하여 두 나라는 ‘피로 맺은 형제’적 관계를 이루었으며 모두 동일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속에서 반세기를 걸어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는 대량 줄었지만, 현재 북·중 무역액은 북한 전반대외무역액의 약 1/3가량의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은 북한 최대의 무역 대상국이다. 지리적으로도 북한은 중국과 약 1,300km의 변경을 잇대고 있고 상호 교류도 그 어느 나라보다 빈번하다.

상술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북한정부와 기업체들은 동일한 민족인 한국보

<sup>12</sup> 중국 『국제무역』, 2005년 2기, p. 69.



다 중국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많고 갈등이 적다. 이는 대북한 투자과정에서 중국기업들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들이다.

## 2)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개혁·개방 이전 중국도 약 30년간의 계획경제체제를 걸어왔다. 물론 북한이 여전히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는 점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지만, 동일한 체제를 경험하였기에 북한경제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계획경제체제를 경험하지 않은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변화하고 싶어도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중국기업들은 20여 년간의 개혁·개방과정에서 많은 경험들을 쌓았으므로 경제협력과정에서 북한의 관리와 민간인들에게 체제전환의 경험과 구체적인 대안까지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 IV. 중국기업이 대북한 투자에서 부딪치게 될 문제

## 1. 낙후한 사회기초시설

현재 북한은 전력공급, 교통운수, 통신 등 사회기초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90년대 후반이후 경제회복과 더불어 여러 면에서 90년대 중반 최악의 시기보다 호전되어가고 있지만, 회복 템포가 매우 느리다.

2003년 북한의 발전시설 용량은 755만kw 이지만, 실제 발전량은 194억kwh로서 발전능력의 25%수준이며 1989년도에 비해 34%<sup>13</sup>가 감소한 상태이다. 즉 심각한 전력난은 북한산업 가동률이 낮은 주요한 원인이다. 1996년 이후 북한은 각지에 6,700여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력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이 지방 자체의 전력수급을 위한 100kw의 소형시설이기 때문에 산업용 전력수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sup>14</sup> 이로 인하여 중국기업들이 진출하여 정상적인 생산가동을 하려면 전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될 것이다. 전력부족에 따라 투자기업이 감수해

<sup>13</sup> 『북한경제백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4), p. 36.

<sup>14</sup> 위의 책, p. 36.

야 할 전기요금 부담 또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요만큼 전기를 공급받을 수도 없다.

교통운수에서도 북한은 화물의 경우 92%를 철로운수에 의지하고 있으며 98%의 철로가 단선이고 80%가 전철이다. 심각한 전력난으로 철도운수가 정상적이 되지 못하고 도로운수는 운송차량이 적고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이므로 교통운수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대북투자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시설, 원자재, 제품의 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sup>15</sup>

현재 북한의 전화보급률은 백명 당 4.64회선으로서<sup>16</sup> 통신시설이 매우 낙후한 상태이며 국제통신망도 매우 제한되어 국제전화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다. 그리고 국내와 국제전화 네트워크가 나누어져 있어 투자기업의 운영과 대외 연락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술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북한 투자 시 되도록이면 평양, 남포 등 사회간접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서해안 지역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 미흡한 자금 결제시스템과 환율문제

현재 중국의 은행기구들이 북한에 진출한 상황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의 무역결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이 걸리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은행간의 대금결제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자금이동이 원활하지 못하여 향후 투자기업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북한당국도 중국내 북한기업과 북한투자를 계획하는 중국투자자 및 무역상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북한 화려은행(華麗銀行)<sup>17</sup> 심양지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중국정부도 대북한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요녕성 금융기관의 국경무역결제용 인민폐 계좌개설을 허용하였다고 한다.<sup>18</sup>

북한에서는 중국인민폐와 북한원 환전이 매우 편리하지만,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북한정부의 공식 환율에 따르면 인민폐 1원으로 북한 화폐 20원을 바꿀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1:300으로 환전

<sup>15</sup> 『북한경제백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 200.

<sup>16</sup> 위의 책, p. 203.

<sup>17</sup> 『심양금보(沈婉-今報)』, 2004년 12월 24일.

<sup>18</sup> 『금융시보(金鵝時報)』, 2004년 11월 25일.

되고 있다. 대북한 투자기업들이 북한화폐를 인민폐로 환전해야 할 경우 공식 환율로 계산한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3. 투자측의 경영자출성 확보문제

현재 북한내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직접 투자방식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합영기업으로 외국측과 북한측이 공동출자하고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다. 둘째, 합작기업으로 외국측과 북한측이 공동출자하고 북한측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셋째, 외국인기업으로 외국측이 출자하고 외국측이 운영하는 방식(나진선봉과 개성특구에서만 허용)이다.

그러나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한 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합영형태에서 출발하나 경영과정에서 외국측 투자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작의 형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의 남북 합영회사인 대우의 민족산업총회사 사례를 보면, 합영법에 따라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노동력 관리는 물론이고 민족산업총회사의 내부 장부에 접근할 수 없기에 수익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결국 한국측의 역할은 동 회사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주문을 받아오고 필요한 생산설비 및 기술을 제공하는데 국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4년 북한이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 조총련계 기업들이 북한에서 다양한 합영사업을 전개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철수 또는 포기한 상태이다. 초기에는 합영형태로 진행됐으나, 점차 경영권을 북한측이 전부 가져감으로써 합영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합영으로 시작하여 1999년 100% 단독 투자로 전환하였다.<sup>19</sup>

이러한 사례들이 의미하는 것은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에 기초하여 직접투자를 행하더라도 북한의 초법적인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이상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기업들이 현재의 보상무역의 형태를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 시 어떠한 합작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up>19</sup> 『북한경제백서』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p. 577.

합영 혹은 합작의 형태를 채용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경영에 공동참여 할 것인지? 만약 공동경영일 경우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할지?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조총련기업 혹은 한국기업들이 겪었던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세워야 할 것인지? 향후 북한도 중국처럼 기업개혁을 실시할 경우 현재의 완전한 국영기업에서 혼합체로 혹은 민영기업으로 변할 경우 이미 투자한 자본소유권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선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합영, 합작 기업내 노동력 관리문제

1994년 1월 20일에 반포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 제5조에는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합영기업내의 노력관리는 일반적으로 북한측에서 맡아하고 있고 문제점들도 많다.

90년대 두만강 개발붐이 일어나 북한이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 세워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당시 연변의 40~50여개 기업들이 나진에 투자하였다. 중국측 기업은 설비와 자금을 내고 북한측은 기존의 공장건물과 일부 설비시설들을 제공하는 합영형태를 취하였다. 공장장과 부기원 등 주요부서 일군만 중국인이고 현장관리인원과 노동자는 원유 기업의 인원들을 채용하였다. 북한측 당비서가 공장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학습 및 사상교육에 소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한 1~2일은 된다는 것이다. 또 길담이, 경축활동준비 등 사회활동에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빼돌려 기업의 정상적 생산에 지장을 주는 등의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법규상 아주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합영기업내 투자측의 기업자율성, 특히 인력관리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로 삼아 향후 대북한투자기업들은 합영기업내에서 기업자율성 보장을 위해 더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5. 행정서비스 문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 투자한 중국기업인들의 체험으로 보면 현재 북한에 투자경영 시 낙후한 인프라 시설도 문제지만, 현지 정부행정인원들이 각종 명목으로 투자측에 경제부담을 주어 투자측의 비생산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 중국도 90년대 초반까지 상술한 문제가 성행하여 정부에서

연성환경개선에 주력하였는바, 현재는 상술한 현상들이 많이 극복되었다. 중국의 FDI 경험을 보면 연성환경은 사회기초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연해지역이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곧바로 양호한 연성환경 마련이었다.

북한도 경제회복과 더불어 각종 법규들이 완성되면 상술한 현상이 많이 극복될 것이라고 믿지만 이는 당면 중국기업들이 대북한 투자 시 직면하게 될 문제이다.

## V. 향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 전망과 추세

현재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북한경제전망의 불투명성, 특히 북핵위기 해결의 불투명성으로 하여 정부측면에서도 대기업의 투자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한걸음 앞서 북한시장을 파악하고 시점(試點)적으로 투자하길 바란다. 그러나 중국기업들의 글로벌화와 동북아 지역경제협력의 발전 및 북한의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연성 등 국제적 환경과 흐름하에서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대북한 투자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견된다.

### 1. 대북한 투자규모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 후 중국기업의 해외 투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한해 동안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 수는 829개로서 2003년보다 62.5% 늘어났고 협의투자액도 77.8% 늘어났다.<sup>20</sup>

북한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 보장면에서 일정한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기는 하나, 중국기업들이 비교우세(優勢)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일정한 시일내에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자기업들이 북한의 자원개발 등 자금수요량이 많은 영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투자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sup>20</sup> 『중국경제참고보』, 2005년 2월 8일.

## 2. 투자영역에 관하여

### 1) 자원개발형 투자중심

개혁·개방이래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영역을 살펴보면 자원개발은 시종 해외 투자의 중점 영역이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 남미의 칠레, 브라질, 아프리카, 호주 등 지역의 광산업체 및 원자재가공업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최대 철강업체인 바오스틸 그룹은 2002년에 총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브라질에 연 370만 톤 제철생산기업을 설립하였고 2004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은 남미를 순방하면서 쿠바 니켈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16건에 달하는 자원협력을 체결하였다.<sup>21</sup>

북한은 상대적으로 광산자원, 해양자원, 임업자원 등이 풍부하다. 광산자원만 보더라도 이미 탐사된 광산자원은 360여 가지이며 공업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200여 가지에 이른다. 북한은 광석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매장량도 풍부하여 마그네슘광석의 저장량은 36억 톤 이상으로서 세계 총 매장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철, 동, 구리, 납, 아연, 텅스텐 등 7가지 광석의 저장량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생산·수출이 되면 일 년에 적어도 10억 달러의 수출액을 창출할 수 있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자금난으로 많은 광산설비들이 이미 노후화 하였고 에너지난으로 약 30% 가동률 밖에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sup>22</sup>

새천년에 진입한 후 중국경제는 새로운 경제성장주기(周期)에 진입하여 국내 각종 원자재 소비량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중국의 원자재 수입의존도는 원유가 40%, 철광석이 50%, 구리가 80%, 알루미늄이 40% 등이다.

강철공업협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강철기업의 총생산설계능력은 3.66억 톤으로서 2003년의 2.47억 톤보다 1.19억 톤 늘어났다. 강철생산량의 대폭증가는 철광석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켜 세계 철광석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였다. 2004년 세계철광석시장가격은 18.6%상승하였다.<sup>23</sup> 중국 국내 철강생산의 증가는 전력공급의 부족을 일으켰고 석탄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중국기업들의 북한철광과 탄광에 대한 투자도 상술한 배경과 관련이 있다.

<sup>21</sup> 위의 신문.

<sup>22</sup> 『조선경제무역지남』 (단동시 정보협회, 1995), p. 5.

<sup>23</sup> 『중국경제참고보』, 2005년 2월 8일.

현재 중국의 광산채굴과 제련설비 및 기술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는바 해외투자를 통하여 자원부족을 완화함과 동시에 기계설비의 시장판로를 넓히는 것도 대북한 투자의 주요한 목적이다.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대북한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측이 제기한 20개의 중점유치프로젝트 중 탄광개발, 석탄가스개발, 목산(木山), 무산, 위산 등 광산의 미광(尾鑛)종합처리, 운모(云母)광 개발, 몰리브덴광 개발 등 5개는 자원개발 항목이었다.

북한은 3면이 바다여서 풍부한 해양수산자원을 가지고 있다. 동해안은 난류와 한류의 교체지역으로서 세계 4대 어장의 하나이다. 1985년도 북한의 어획량은 1,781만 톤으로서 해방 이후의 최고기록이었으나,<sup>24</sup> 90년대 이후 석유수입이 대폭 줄어 고기잡이배들의 기름공급이 따라가지 못하여 어획량은 80년대 중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제시장에서 북한산 해산물의 가격과 품질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투자 전망이 비교적 밝다. 매년 어패류 제품이 일본으로는 7,000달러/톤, 중국으로는 5,000달러/톤씩 수출되고 있다.<sup>25</sup>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해산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동시에 어업영역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가져와 고기잡이 기술과 장비 등의 면에서도 일정한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였는바 어업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동해 앞바다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 원산 앞바다를 중국어선에 개방한 사건에 대해 한국측에서는 조선반도의 어족자원이 고갈될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현재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인 북한은 이러한 후유증들을 일일이 고려할 여지가 없다. 향후의 후유증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을 다그쳐 북한경제를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 2) 경공업에 대한 투자증가

해방 이래 북한은 줄곧 중공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추진하여 왔기에 농업, 경공업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다. 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농업생산을 신속히 회복하여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한경제난 해결의 급선무로 되고 있다. 북한의 경공업생산도 침체된 상황이고 특히 가전제품 생산은 아주 낙후하여

<sup>24</sup> 임금숙, 『조선경제』 (중국길림성인민출판사, 2000), p. 146.

<sup>25</sup> 한국 KOTRA.

중국,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황이고 일부분은 인척관계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어간 중고제품이다. 향후 북한경제회복과 더불어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공업 제품수요량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날 것이다.<sup>26</sup>

현재 중국은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재봉침, 자전거 등의 설비가동률이 50% 정도로, 기업들에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인구가 적고 시장이 제한되어 대규모 투자는 장래성이 없으며 중소기업 투자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건축자재시장도 전망이 좋다. 현재 북한의 대부분 건축물들은 이미 낡은 상태이고 그나마 외형상 지나치게 장식이 없다. 경제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고층건물의 품위를 높여 줄 수 있는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소요될 것이다. 북한은 건축자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은 충족하나 기술과 설비가 문제시되고 있다.

북한은 임산(林産) 자원이 풍부하나 제지설비와 기술이 낙후하여 심각한 종이난에 시달리고 있다.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시 북한은 연 15,000톤 종이생산항목을 제기하였다.

중국은 건축용 자재, 제지생산의 기술 설비 등 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국내 시장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기에, 이 영역의 생산설비와 기술의 북한 이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 3) 유통영역에 대한 투자 증가

북한은 장기간 국가공급형 유통체계하에서 유통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부족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북한의 유통부문 전반, 즉 상업유통, 물류유통 및 유통조성 부문(금융, 정보, 통신, 광고, 부동산, 자문 등)의 발전은 저급한 수준이고 유통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소매업형태도 백화점과 일반 상점, 시장으로서 극히 단조롭고 현대적 슈퍼마켓, 편의점, 전문용품점, 전매점, 쇼핑몰 등은 아직 미개발상태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유통산업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유통업체의 경영 규모가 부단히 늘어나고 업체의 다원화 발전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였는바, 현

<sup>26</sup>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은 55만 톤 요소와 33만 톤 암모니아 생산항목, 200톤 제초제생산항목, 3000만<sup>2</sup> 농업용비닐방막생산항목, 1만대 이동식탈곡기 생산항목 등을 제기하였다. <<http://www.3000li.com/> 2005년 2월 25일> 『조선투자환경설명회』 소식 보도.



대적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전문용품점, 전매점,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가 전국적으로 보급된 상태이며 일정한 경험도 쌓았다. 중국 상인들의 평양백화점에서의 진입은 중국 상인들의 유통영역에 대한 투자의 시작으로 향후 유통영역에 대한 투자가 부단히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투자설명회 시 북한은 평양시교에 물자교류시장 건립항목을 제기하였다. 상품공급이 지극히 부족한 북한의 상황에서 유통영역에 대한 투자는 중국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로이며 제조업에 비하여 사회간접시설의 영향을 적게 받고 이윤창출이 빠른 등의 특징이 있어 민영기업들의 이상적인 투자영역으로 판단된다.

### 3. 투자방식에 관하여

그 동안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해외투자기업에 한하여 엄격한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객관적으로 중국기업들의 해외 투자규모를 억제하였다. 2003년 중국정부는 해외투자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였고 해외투자에 관한 심사·비준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300만 달러 이하의 투자항목은 현지 유관 부분에서 심사·비준하도록 결정하였다. 북경, 상해, 산둥, 절강, 복건, 광둥 등 12개 성시를 해외투자항목 심사·비준 시점(試點) 도시로 결정하였고 연해지역 및 사천, 흑룡강성 등 도시의 외화사용 규모를 2억 달러까지 확대하였으며 해외 투자 이윤보증금 제도도 취소하였다.<sup>27</sup>

하지만, 중국정부는 해외투자기업들이 외화형식투자보다 기존의 기계설비, 기술(상표, 특허권, 특허기술) 등의 형태로 투자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화폐형식으로 투자할 경우도 국내자금보다는 투자 대상국의 자금 혹은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얻어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많은 영역에서 북한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고, 저기술영역의 설비들은 이미 과잉 상태이기에 기존의 기계설비, 원자재, 기술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p>27</sup> 『중국공상시보』(工商時報), 2004년 1월 20일.

#### 4. 투자기업의 소유권 형태

해외 투자기업은 소유권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독자기업 혹은 합자기업형태를 택하고 있다. 기술확산 방지 동기(動機)가 명확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자기업형태를 택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투자한 중국기업들 중 70%는 합자(合資)기업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은 대부분 해외로 투자한 기업들이 이전한(移轉) 기술이 성숙기에 진입한 제품으로서 기술보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이 국외로 진출한 투자역사가 비교적 짧기에 노하우가 부족하고 투자 대상국의 현지상황에도 익숙하지 못하기에 현지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이 북한내 투자형태를 살펴보면 보상무역형태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바, 기계설비투자 가치 대신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 무역방식의 일종이기도 하고 가장 간단한 투자형태이기도 하다. 향후 보상무역의 형태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로 전환할 경우 북한 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즉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틀 속에서 움직이면 합자(合資)보다도 합작(合作)형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 중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위한 정책적 과제

### 1. 정부차원의 정책적 과제

#### 1) 유리한 국제 환경추진

중국이 성공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외부 요인은 70년대 이후 중·일수교와 중·미수교 등을 통하여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투자대상국의 정치, 경제환경의 안정은 투자기업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다. 80년대 이후 북한도 외자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가 부진한 원인은 불리한 국제적 환경 때문이다. 북한에게 유리한 국제적 환경마련의 관건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리기 어렵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50년 6월 28일 수출통제법에 의해 대북한 수출을 금지하는 최초의 대북한 경제제재를 취한 후,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규제조

치를 통해 북한에 대해 포괄적이고 엄격한 경제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제제재의 내용은 무역, 금융거래를 포함한 양자간 경제행위의 금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제한, 국제금융기관의 대북한차관 및 지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바세나르협정과 같은 다자간 수출 통제시스템의 구축 등이다. 무역 영역을 보더라도 북한은 미국이 개발도상국들의 대미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는 일반 특혜관세제도의 대상국가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수출품은 다른 국가의 제품에 비하여 높은 관세를 부여받게 되므로 낮은 가격을 활용한 시장경쟁력은 기대할 수 없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 커다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풀리게 되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수 있으며 경제회복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자금의 일부를 국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제회복과 더불어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소비수준도 향상되어 시장구매력이 증가되면 중국기업의 투자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이다.

## 2) 북한의 개혁과 개방 추진

북한경제가 현재 상황에 이른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한데 있다. 9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해 왔지만(예를 들면, 2002년 ‘7·1경제개선조치’), 전반적인 경제운영시스템은 여전히 계획경제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북한경제체제가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자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일련의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다. 외자기업에서 북한산 원자재를 사용할 경우 계획경제시스템에 의하면 반드시 국가계획에 들어가야만 하고 노동자채용도 국가노동배치부문의 배치에 따라야 한다. 이는 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나 기술 인원을 채용하는데 불리하다.

개방과 개혁은 상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대내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한 대외개방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즉 북한이 외자를 도입하여 경제회생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현재의 경제관리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진행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여러모로 변화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중국의 영향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이 매년 중국을 방문한 뒤에는 북한

에 새로운 변화가 뒤따른다. 중국 개혁·개방 20여년 이래의 경험은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 고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 리스크를 줄이면서 윈-윈의 효과를 이루려면 중국은 반드시 각종 경로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3) 투자관련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

현재 중국과 북한간은 1961년에 제정한 「북·중우호협약조약」 외 투자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향후 중국기업이 대북한 투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북·중 쌍방간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에 관한 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재합의서」 등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5년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대북한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측 김정민 집행국장은 쌍방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북·중 쌍방간 「투자보장합의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표시하였다.

### 4) 북한 경제동향과 시장정보의 제공

중국과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으나 북한이 외부와의 거래를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북한경제동향, 시장정보 등에 대하여 파악한 것이 너무 적다. 때문에 북한의 경제동향과 시장정보를 제때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설이 필요하다.

이 면에서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경험은 우리가 배워야 할 바이다. 한국정부에서 운영하는 KOTRA에서는 세계 각국에 해외무역관을 설치하여 기업들에게 해외투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만 해도 북경, 상해, 광주, 청도, 대련 등 8개 도시에 무역관을 설치하고 전문 인원들이 중국경제동향과 시장동태를 매일 홈페이지에 올려 중국진출기업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한투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북한에 유관기구들을 설치하고 시장정보를 제때에 제공하여야한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북·중우호연합국제경제문화교류중심’, ‘조선경제자문중심’, ‘3천리투자자문중심’, ‘단동압록강경제투자자문’ 등 기구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기는 하나 아직은 단순한 소식 보도위주이다. 향후 중국기업들의 성공적인 대북한 투자를 위하여서는 반드시 북한시장정보에 대한 서비스 개설이 필요하다.

## 2. 기업차원의 정책적 과제

### 1) 장기 투자전략의 설정

현재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중국내 석탄, 철광석 등 자원부족을 미봉함과 동시에 경공업제품의 대외수출을 추진하기 위한 보상무역형태의 항목위주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업내 노동자들의 생활필수품공급을 위한 단기적인 동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이나 북한기업을 막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합작 전략은 아주 부족하다고 보여 진다.

대북투자에서 장기적인 투자전략 없이 투자한 만큼 자원이나 기타 제품으로 보상받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이를 위해 기타 기초시설에 투자한 자본 낭비로 인하여 총체적인 투자수익이 낮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총체적인 외자도 입전략이 없으면 중복성 투자, 자원의 비효율성 개발, 낙후된 설비 도입, 환경파괴 등 일련의 후유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쌍방이 모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한 투자전략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과 향후의 발전추세 그리고 중국 거시경제의 발전추세와 투자기업의 장기발전계획 등 다방면의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2) 투자 항목 타당성 연구

투자항목에 대한 세밀한 조사연구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면, 광산자원개발에 투자할 경우 반드시 광산 자원부존에 대한 정확한 수치, 북한국내의 수요량, 잠재적인 경쟁자, 생산운수와 관련되는 교통운수여건, 중국시장에 반입할 경우 경제수익성, 투자자금의 시간가치와 인플레이션 등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원개발영역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며 상환주기가 길기 때문에 엄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전력난으로 현재 북한의 강철, 비금속기업의 생산가동률은 30~40% 밖에 안된다. 일부 광산들에서도 당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에 광석을 수출하고 있지만, 만약 전력난이 완화되고 기업 가동률이 향상될 경우 정부측에서 대중국수출량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sup>28</sup> 때문에 자원개발영역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일 경우 반드시 북한 현유의 경제사정과 향후 변화예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sup>28</sup> 『북한경제백서』 (2002) p. 108.

북한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겪은 고충 중 하나가 합작 투자생산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므로 투자측이 부득불 이 영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대비용을 안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생산된 제품을 항구까지 운반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므로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투자측이 부담토록 하는 경우(금강산 샘물공장 등), 항만에서 원부자재를 하역해야 하는데 하역에 따른 운송장비가 없으므로 투자측 기업이 준비토록 하는 경우 등이 있다. 투자협의를 체결한 후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포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가 거론될 경우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사전에 투자관련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 대안도 투자협약서에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 3) 북한 FDI 동향 연구

남북 경제협력은 조선반도 민족통일대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남북 모두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2년 대우가 남포공단 합영사업 최초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이래 2002년 12월 말까지 도합 48개 기업이 협력사업자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중 25개 기업이 협력사업으로 승인받아 실지 북한에서 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sup>29</sup> 추진 중에 있는 개성공단사업은 이미 시범단지가 완료되어 15개 기업이 이미 입주하였으며 지난 2005년 3월에 전력, 통신공급보강이 완료되었고 향후 더욱 많은 한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입할 것이다.<sup>30</sup>

한국은 개성공단을 대북한 투자 거점으로 삼고 점차 북상(北上)하여 남포, 평양 등의 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인 바, 중국의 대북한 투자기업과 경쟁 라이벌로 될 수도 있다. 북한은 원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진출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한국, 일본 시장을 겨냥해야 하지만, 향후 한국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한국,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 중국기업들의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제품이 북한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sup>29</sup> 위의 책, p. 245.

<sup>30</sup> 위의 책, p. 108.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이 합의한 개성공단조성사약 2천 억원을 투입해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총 800만평의 공단과 1천 200만평의 배후 단지를(총 2000만평, 65.7km)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1단계사업은 2007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총 200개의 한국업체가 진출할 예정이었다.

경공업제품은 중국보다 기술우위에 있어 중국측 기업제품의 판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향후 대북한 투자기업들은 반드시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동향과 향후 추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기업의 우세를 발휘하고 열세를 피하면서 직접적인 경쟁은 삼가해야 한다.

## VII.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 1. 북한 경제회복에 일정한 ‘수혈’ 역할

90년대 말부터 북한경제는 회복의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북한자체의 낮은 자생력,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투자재원 부족, 선진기술도입 부진에 따른 현대화의 차질, 심각한 원부자재난과 에너지난, 수송난, 계획경제체제의 한계성, 특히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와 국제시장에서의 소외 등 일련의 원인으로 경제성장율은 1999년에 6.2%를 이룬 후 2000년~2004년까지 각각 1.3%, 3.7%, 1.2%, 1.8%, 1.3%로서 회복속도가 더디다. 2004년 북한의 대외무역액은 31억 달러로서 1989년 45.9억 달러의 2/3 수준에 이르렀고 2004년도 전력생산량은 198억kwh로서 1990년 277억kwh의 70%수준이며 기타 주요공업품의 생산량도 90년대 초반의 2/3의 수준 밖에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서<sup>31</sup> ‘고난의 행군’을 벗어났지만, ‘강성대국’을 건설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

현재 북한경제는 대외의 수혈 없이 단지 북한 자체의 자생력만으로는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기업들의 투자는 당면 북한기업이 설비와 원자재, 전력, 기계부품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 생활필수품들을 제공하여 공장가동률을 높일 수 있어 북한경제회생에 일정한 ‘수혈’ 역할을 할 것이다.

### 2. 자원개발형 투자의 견인(牽引)역할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광산개발, 어업개발, 임업개발 등 자원개발투

<sup>31</sup> 『북한경제백서』 (2003/04), p. 318.

자가 위주이다.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는 전후연관성(前後關聯)이 높기에 공업, 교통운수업 등 일련의 관련 영역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무산광산의 가동률이 제고되면 성진제련소, 청진제련소, 김책제련소 등 함경도 지역의 철강기업들의 가동률이 제고될 것이고 따라서 철강을 원자재로 하는 일련의 공업기업소들의 가동률이 제고될 것이며 노동자들의 취업률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력도 올라가게 되어 경공업제품에 대한 수요량과 대외무역 수출입이 늘어날 것이며 교통운수량도 늘어날 것이다.

2차대전 후 일본은 철강, 석탄공업을 중점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하여 고도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90년대 말 이후 북한도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업, 농업을 중점발전시키는 전략을 택하였는바, 이는 당면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전략과도 맞먹으며 전후연관성(前後關聯)이 높아 북한 경제 전반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3. 북한경제체제의 변화 추진

대북한 투자과정에서 중국기업들은 시장경제원칙과 관행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북한측에서도 합작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서는 중국기업들의 요구에 따르게 될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외자도입과정이 바로 이점을 증명하여 주었다. 투자측에서 원자재조달방식, 제품판로방식, 기업운영방식, 노동자관리방식 등의 면에서 시장경제방식과 관행에 따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중국정부도 외자도입과 동시에 부단히 대내체제개혁을 진행하였으며 그것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과도기적 과정이었다. 향후 북한도 FDI 도입과정에서 당초 중국이 겪었던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될 것이다. 즉 FDI는 금융재정, 조세, 대외무역 등 거시경제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관리, 인사관리제도 등 미시적 면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는 경제체제의 변화를 추진한다. FDI 제도변화의 역할이 바로 이런 점이다.

### 4. 기술확산과 인력자본 질 향상 효과

FDI는 기술확산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발전한 나라에서 발전중인 나라들에 대한 기술확산의 주요한 경로이다. 기술확산은 첨단기술제품을 수입하거나 선진적인



외국기술과 국외의 인재들을 인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중국기업들이 대북한 투자과정에 선진적인 설비와 기술을 투입하게 되면 그 업종의 다른 기업에 대하여 시범적 역할을 하게 되며 모방으로부터 창조로 발전하여 기술확산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인력자본은 단순 노동력과 달리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만 형성될 수 있다. FDI 유입은 발전중인 나라들의 인재가 외자기업에서 ‘보면서 배우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개혁·개방 후 중국 인력자본의 질은 과거에 비해 훨씬 향상되었는바, 이는 외자기업들이 설비투자과 동시에 중국내 인력들을 채용하여 ‘보면서 배우는’ 효과를 창출한 것과 일정한 연관이 있다.

북한은 장기간 경제난으로 인력자본의 질이 낙후된 상태이다.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는 새로운 설비투입과 동시에 기술과 선진적인 기업관리 방식도 전수할 것인 바, 이는 북한 인력자본의 질 향상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이다.

## 5.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

90년대 말부터 북한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북·중 무역액이 대폭 늘어났다. 2004년 북·중 무역은 13억 달러로서 북한 대외무역액의 45%<sup>32</sup>를 차지하여 현재 중국은 북한의 가장 주요한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중국기업이 본격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경우 투자설비, 원자재의 수출과 제품의 수입 등이 진일보 증가되어 북·중 무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 질 것이며 동시에 북한 산업의 기계설비와 기술 등의 면에서 중국에 대한 북한산업의 의존도도 높아 질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대북영향력은 정치영역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까지 확대된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 VIII. 맺음말

현재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투자형태도 보상무역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FDI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계속해서

<sup>32</sup> 중국 『국제무역』 (2005년 2월), p. 68.

높아져가는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열과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가시화되어 향후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추세로 예견된다.

80년대 이후 조총련계기업과 한국기업의 대북한 투자가 주로 북한의 싼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절감형 투자였다면, 현재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자원개발지향형과 시장지향형 투자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투자방식도 보상무역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기에 투자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북한의 현재 상황에도 맞는다.

80년대이래 시중 부진했던 외자도입의 교훈을 통하여 현재 북한정부도 2004년 말부터 외자기업내 노동자 최저임금을 원래의 60~80유로에서 30유로로 인하하고, 외자기업들의 항구사용료, 전기세, 물세 등 각종 비용을 인하하며 투자기업 심사·비준기간을 원래의 50일에서 10일<sup>33</sup> 이내로 단축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대외 투자 여건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기업들의 대북한 투자환경은 과거에 비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중국기업의 대북한 투자는 북한의 열악한 사회기초시설, 낮은 구매력, 시장경제의 미발달, 관념상의 장애 등 여러 가지 애로점에 직면하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상응한 대책 연구는 향후 본 연구의 지속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향후 북한도 경제회복의 속도를 다그치기 위하여 남으로는 개성공단건설을 통하여 한국의 자본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중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할 것으로서 북한의 외자도입전략과 구체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 바 이에 상응한 연구도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sup>33</sup> <www.3000li.com/ 2005년 2월 25일> ‘조선투자환경설명회’ 소식보도.